

발행인 칼럼

서산시 시민광장 맞을린다



가금현 발행인

충남 서산시가 자랑하는 최고의 공원 중 하나가 호수공원이다. 일명 뚝방죽이라 불리며 악취가 진동했던 저수지가 서산시의 랜드마크인 중앙호수공원으로 탈바꿈돼 일 년 내내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의 종합병원보다도 낮다. 눈리를 들을 정도로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 시간까지 호수공원에서 운동하는 시민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자체 역할 중 하나이다. 또 시민 중 자신이 일하는 일터와 가족이 머무는 지역이 다른 이유 중 하나가 정주여건이다. 이들 가족 구성원이 일터가 있는 지자체에 머무를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기획해 개발하고 건설하는 지자체장이 현명한 지자체장이다.

서산시가 이를 위해 또 하나의 기획을 세워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완섭 시장은 CTN 취재진과 인터뷰를 통해 서산시가 호수공원과 연계한 또 하나의 시민광장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산시가 시민광장을 만들고자 하는 곳은 호수공원 주차장 부지 즉 중앙도서관이 들어서고자 했던 자리다. 본 기자도 이 부지에 중앙도서관은 적합하지 않다고 누누이 강조했던 적이 있다. 주변의 상가와 유충주점 등 밤이 되면 왁자지껄 운영되고 있는 중심에 도서관은 거리가 멀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부지는 시민들의 가장 큰 편의시설 중 하나인 주차장으로 활용되면서 인근 상가와 호수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앙도서관보다는 호수공원과 연계해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광장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서산시가 그리는 그림은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에 대해 2층 주차장을 만들고 현재 호수공원 트랙과 같은 높이에 잔디광장을 만든 뒤 시민들의 편의시설을 갖출 것이라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850m의 트랙이 1km가 넘는 것은 물론 분수광장과 연계된 드넓은

광장이 조성돼 시민들은 이곳에서 크고 작은 행사는 물론 편안하고 여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문제는 이 시민광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 또한 이완섭 시장은 대안을 갖고 있었다. 바로 시민이 참여하고, 기업이 참여해 이루자는 것이다. 말 그대로 시민광장인 만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내고, 기업 또한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가능한 일이다. 이에 서는 시민광장 건설에 참여한 기업과 시민, 단체 등에 대해 시민광장 건립 명예의 전당을 만들어 올려주고, 기업의 경우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홍보관 등을 설치, 지역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법을 모색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문제는 시민을 위한 일인데도 정치적 노림 수로 무조건적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무리 좋은 일도 진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지만, 이번 서산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시민광장 건설만큼은 어떤 정치적 목적 없이 시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나 된 마음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많은 걸림돌과 추가된 재원으로 이뤄진다는 것은 이미 검증된 일이다.

사설

수험생, 수능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 나서야

오는 11월 16일 전국 1,279개 시험장에서 504,588명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통 소통 원활화, 시험장 주변 소음 방지, 기상 악화 등 자연재해 대비, 수능 문답지 보관·관리 등 수능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 한편 교육부는 10월 17일 국무회의에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을 위한 지원대책」을 보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수능은 11월 16일 오전 8시 40분부터 17시 45분(일반수험생 기준)까지 전국 84개 시험지구 1,279개 시험장에서 실시되며, 응시자는 전년보다 3,442명 감소한 504,588명이다. 이에 정부는 50만여 명의 수험생이 수능에 원활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당일 아침 교통 혼잡을 줄이고, 시험시간 중에는 시험장 주변 소음을 방지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교통 소통 원활화를 위해 수능 당일 아침 수험생이 교통 혼잡으로 시험장에 늦게 도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관공서·기업체 등에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협조 요청하기로 했다. 또 수험생 등교 시간대(오전 6시~8시 10분)에 수도권 지하철 운행 대수를 늘리고, 경찰서·행정기관의 비상수송차량을 수험생 이동 경로에 배치하여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시험장 주변의 교통 혼잡 예방을 위해 수능 당일 시험장 200m 전방부터 차량 출입을 통제한다. 따라서 수능 당일 자차를 이용하는 수험생은 시험장 200m 전방에서 내려 걸어가야 한다. 또 시험장 주변 소음 방지 등을 위해 3교시 영어영역 듣기

평가 진행 시간(13:10~13:35, 25분간)에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기·헬리콥터 이착륙 시간을 조정하고, 포사격 및 전자 이동 등 군사훈련을 잠시 중단한다. 수험생이 시험장 주변 소음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시험장 주변을 지나는 버스·열차 등은 서행하고 경적 사용을 자제하며, 시험장 주변 행사장, 공사장 등의 생활소음도 최대한 자제할 것을 당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기상악화 등 자연재해 대비를 위해 수험생은 11월 10일부터 기상청 누리집(https://www.kma.go.kr)에서 시험장 날씨 정보를 미리 확인하여 기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시도에서는 기상악화에 대비해 도서·벽지 수험생 수송 대책, 제설 대책 등을 마련한다. 한편 17개 시도교육청은 안전한 시험환경 조성을 위해 10월 16일부터 11월 4일까지 전체 시험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수능 당일 지진 발생에 대비해 지진 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전체 시험장의 정보 전달 체계를 구축하여 지진 발생 시 대대요령에 따라 빠르게 대응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능 문답지 보안관리를 위해 경찰청, 시도교육청과 함께 문답지 관리를 위한 철저한 경비체계를 마련하고, 모든 시험지구에 교육부 중앙협력관을 파견하여 문답지 관리를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모든 수험생이 수능을 잘 치룰 수 있도록 전 부처와 함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수험생 모두가 안심하고 마지막까지 수능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한다고 했다. 말뿐인 행정이 아니길 당부한다.

CTN 논단

직장인의 금기 사항



가갑순 충청대학교 명예교수

나는 47년째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그룹사에 입사해 사원에서 사다리를 타고 최고경영자까지 올라왔고, 지금은 규모 면에서 작은 회사지만 오너 경영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변 사람들은 아직도 경영 일선에 있는 나

를 부러워한다. 나는 후배들이나 부하였던 사람들도 직장인이 지켜야 할 덕목과 금기 사항이 무엇인지는 질문을 가끔 받기도 한다. 직장인의 덕목으로는 매사에 열정을 가지고 근무에 임하며 자기 계발에 소홀하지 않으며 정직함으로써 동료나 상사의 신뢰를 얻는 등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말하곤 한다. 자기 가치를 높이고 주변의 인맥을 구성하는 것은 사회생활의 영토를 넓히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상사의 꾸지람만 듣고 오면 직장 그만두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사람이 많다. 진급이 안 된다. 월급이 안 올랐다가 하면서 때론 때론 떠나야 한다고 말한다. 또 상사 아무개 때문에 그만뒀어야 해, 특하면 사표 낸다 한다. 나는 직장인의 금기 사항은 '그

만둔다는 말'이라고 일러주곤 한다. 직장인 나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생활의 터전이자 생활의 수단이며 목적이기도 하다. 직업을 통해 회사와 사회, 국가에 봉사하는 보람의 공간이기 때문에 조금도 소홀하면 안 된다. 나 아니면 이 회사가 돌아갈 수 없다는 독불장군이 성공한 예는 없다. 조직은 어느 특정한 사람이 없어도 잘 돌아가며 어느 때에는 지금 있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모두가 떠났다는 엄연한 사실을 체험하기도 한다. 정말 떠날 자신이 있는 사람은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며 조용히 떠난다. 화려한 데뷔는 많이 보았지만 화려한 은퇴는 왜 보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을까. 직장은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존재하는 소중한 일터이다. 자신과 직장을 사랑하는 천직이 되라고 말을 해주곤 한다.

지역사회 퇴직공무원들, 취약계층 발굴·보호 앞장서라

주민의 세금으로 평생을 살아온 퇴직 공무원들은 지역주민의 안녕을 위한 봉사자로 나서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한 바 있지만, 이는 꿈 같은 이야기로 치부됐다. 공무원으로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자로 나서는 퇴직 공무원들은 만에 하나 정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가 지난 17일 세종청사에서 전북·경북·부산 지자체,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우리 동네 복지 시니어'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다. '우리 동네 복지 시니어' 사업은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사회복지 협업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퇴직공무원들이 재직 시 보유한 복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 상황이 예견되거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주민을 방문·상담하고, 읍면동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제보하는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제도이다. 또 퇴직공무원들은 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개인별·가구별 맞춤형 복지정보를 안내하고, 복지신청서 작성을 돕는 등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북 김제시, 경북 고령군, 부

산 사하구 3개 기초 지자체가 '우리 동네 복지 시니어' 시범운영에 참여하게 되고, 교육부, 행안부, 복지부는 사업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게 된다. 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는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타 지자체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장상윤 차관은 퇴직공무원의 참여는 지역사회의 복지 인력 부족 문제에 보탬이 되고, 퇴직공무원의 복지 전문성과 경험이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 제도가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을 적시에 발굴·보호하고 개인별·가구별 맞춤형 지원을 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해, 앞으로 전국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일 중 하나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에 국민의 혈세가 새서는 안 될 일이다. 즉 퇴직 후 퇴직공무원들이 일자리를 나눠 먹는다는 식으로 변질 될까 우려돼서 하는 말이다. 현재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위탁기관을 보면 평생을 주민의 덕으로 살아온 퇴직공무원들이 퇴직 후 또 다시 기관의 장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국민의 세금 향아리에 빨대 꽂고 빨아 먹는 것을 볼 수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우리 동네 복지 시니어'만큼은 순수 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

계룡시, '평생학습도시로서의 도약과 비전 포럼' 개최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계룡 구현

계룡시(시장 이용우)는 지난 19일 계룡문화예술의전당에서 '평생학습도시로서의 도약과 비전'이라는 주제로 평생학습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2023년 3월 계룡시가 신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평생학습도시로서 추구해야 할 역할과 방향에 대한 논의를 통해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계룡 구현 방안에 중점을 두고 열렸다.

포럼에 참석한 공주대학교 박상욱 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평생학습 참여기회 보장과 주제적 참여 확대를 통해 학습 결과의 지역 선순환 구조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동아리와 면·동학습센터의 방향과 역할을 사례와 함께 발표해 포럼 참석자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박상욱 교수는 공주대학교 지방교육정책개발위원을 역임하는 등 오랜 기간 교육 발전

을 위해 헌신한 평생학습 분야의 권위자이다. 공주대학교 김은경 교수는 평생학습 공동체 구현 전략과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발전과제에 대해 발표했으며, 경기도 이천시 류이타 평생교육사는 이천시의 사례를 통해 면·동학습센터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소개하며 면·동학습센터만의 비전수립과 마을공동체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앞으로 계룡시가 명실상부한 평생학습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점검·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계룡시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민준 기자

청주시, 주민 건의사항 신속 추진

민선8기 출범 이후 주민과의 대화 2회 진행

청주시는 민선8기 출범 후 2회에 걸쳐 진행한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신속히 추진해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청주시장은 민선8기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43개 읍면동을 방문한데 이어 올해 3월에는 4개 구청에서 주민들을 만나 건의사항을 직접 듣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총 573건(2022: 454건, 2023: 119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이는 대부분의 건의사항이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사항인 만큼 기존 예산

과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573건 중 249건(44%)을 완료했고 218건(38%)은 현재 추진 중이다. 특히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사업들이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물꼬를 트게 됐다. 상습 지·정체 구간인 금천새마을금고부터 영운사 거리까지 약 1km의 도로 폭을 확대하는 '수영로 확장공사'는 현재 1차 보상 협의 중이다. 또한 상당구 당산공원에 인공폭포를 조성하는 '당산공원 친수 공간 조성사업'은 지난 8월 착 공해 올해 안에 사업을 마칠 계획이며, 흥덕구

가경천 일원을 음악이 흐르는 낭만의 거리로 조성하는 '가경천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도 오는 12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법적으로 불가한 사업 등 106건(18%)의 사업은 불편사항을 건의한 주민에게 직접 그 사유를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의 건의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해결이 어려운 것은 주민에게 직접 설명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주민 불편사항을 주민 눈높이에서 해결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2024년에도 주민과의 대화를 이어갈 방침이며 시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박철우 기자



  
 http://www.ctnedu.kr
   
 2014년 9월 1일 (주) 등록번호 충남, 다01378
   
 발행·편집인 가금현 / 편집국장 한성진 / 인쇄 디엠코리아(주)
   
 뉴스레보: 041-631-8114 / 광고문의: 080-631-8114 / 010-4222-9009
   
 주소: [32416] 충남 예산군 삽교읍 청사로225엔젤스타워2차 309호
   
 독자서비스센터: 041-337-1791 / 팩스: 041-337-1790
   
 E-mail: ctn114@hanmail.net / 홈페이지: http://www.ctnews.kr
   
 구독료: 월 1만 2000원 / 저매지 월간충남, 충청타임즈, CTN방송
   
CTN저매지별도의 특수주간 신문 등록 및 사업자금이 있으며,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